

수요가정에배순서

1.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2. 찬 송 가 365장 다같이
(마음속에 근심있는 사람)

1.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2.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3.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 【후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 기 도 가족 중에서 기도자

4. 말 씀 시141:1-10 인도자

5. 찬 송 가 361장 다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1.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2.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3.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 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4.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사라지고

【후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시간에 복을 주시네
곤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6. 합심기도

1. 다니엘 기도회와 성경통독 새벽기도회 가운데 성령님의 기쁨부음 있도록
2.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고, 교회내 확진자가 한사람도 발생하지 않게 하소서
3. 암과 질병으로 투병중인 교우들에게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주시도록
4. 담임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주시고 항상 성령충만함 주시도록

7. 주기도문 다같이

다윗의 기도를 닮게 하소서(시141:1-10)

시편에는 수많은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의 시(詩)도 있고, 탄원의 시(詩)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을 보면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 부르짖게 하소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지칠 만도 합니다. 인생의 회의가 생길 만도 충분하고, 원망할만한 상황들이 끝도 없이 펼쳐진 것을 시편과 사무엘상하를 묵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다윗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의 기도를 함께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 부르짖는 것이 향이 되고 제사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성소에 있는 분향 단에 향을 피웁니다. 향이 성소에 가득 차면 이 향이 하나님께 상달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향을 성도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향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피어 오르듯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2월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더 확산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언제까지 계속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의 질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묵상하며 다시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성소의 향이 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둘째, 다윗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께만 피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7-8절 사람이 밭 갈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사람들은 우리가 위기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피하면, 너 지금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빨리 대책을 세워라, 너 이러다가 망하고 죽는다, 빨리 너를 도울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음 직전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기도합니다.

듣기는 쉽고, 말하기도 쉽지만, 정말 다급한 상황을 당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피하고, 돈에 피하고, 원망하고, 회피하고, 자포자기 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해골이 지옥문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다윗과 같은 선택과 기도를 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만 피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게

하소서. 모두가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 새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